

이슈

2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제3068호

내가 왜 떴게?

돌아온 류현진, 밀워키전 5.20이닝 2실점 쾌투



건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깨끗이 털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류현진(LA 다저스)이 21일(한국시간)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열린 밀워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해 역동적인 폼으로 볼을 뿌리고 있다. 류현진은 5.20이닝 2실점으로 패전 명예를 안았다.

류현진 시즌 최다 9K·92구…건강함 증명했다

홀런 1위 엘리치에 두 방 맞았지만 빠른 공·변화구로 상대 타선 요리
로버츠 감독 “확실한 믿음을 줬다”
강정호는 텍사스전서 3호 솔로포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건강함을 입증하는 호투를 펼쳤다. 개인 통산 100번째 선발등판에서 2019시즌 첫 패전을 떠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확이 더 많은 경기였다.

류현진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5.20이닝 동안 6안타(2홈런) 1볼넷 9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9개의 삼진

과 92개의 투구수 모두 올 시즌 개인 한 경기 최다 기록이다. 지난 9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원정에서 사타구니 부상으로 1.1이닝만에 자진 강판한 뒤 첫 등판에서 건강함을 입증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날 류현진은 최고구속 148km의 빠른 공(42개)과 주무기인 서클체인지업(23개), 컷패스트볼(커터·19개), 커브(7개), 슬라이더(1개)를 섞어 던졌다. 지난해 내셔널리그(NL)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크리스티안 엘리치에게 솔로홈런 2방을 허용했지만 2회를 제외한 매 이닝 삼진을 속아내며 안정감을 뽐냈다. 빠른 공과 체인지업의 조합은 상대 타자의 타이밍을 뺏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스트라이크도 62개에 달했다.

MLB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엘리치에게 홈런 2방을 허용

한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오늘 등판에서 얻은 수확은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도 “류현진이 정말 잘 던졌다. 복귀 후 첫 등판부터 확실한 믿음을 줬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32)는 2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경기에서 2번타자 3루수로 선발출장, 0-0으로 맞선 4회말 텍사스 선발투수 데릭 홀랜드의 2구째 너클커브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홈런(3호)을 터트렸다. 지난 17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원정 이후 3경기만에 홈런을 터트리며 3타수1안타1타점1득점을 기록한 강정호는 시즌 타율을 종전 0.143에서 0.154(52타수8안타)로 소폭 끌어올렸다.

피츠버그는 3-1로 6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28)은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경기에서 3번타자 1루수로 선발출장해 두 번째 타석에서 올 시즌 첫 3루타를 터트리는 등 2타수1안타1득점을 기록했다. 종아리 통증으로 6회 수비부터 교체된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286이 됐고, 탬파베이는 5-6으로 졌다.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37)는 같은 날 열린 클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타자 우익수로 선발출장해 2루타를 터트리며 5타수1안타1득점을 기록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317이 됐고, 텍사스는 9-4로 이겼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강다니엘

●강다니엘, 56주째 최다득표 : 강다니엘이 아이돌차트 4월 2주차 평점 랭킹에서 12만 4679표를 얻어 최다득표를 했다. 무려 56주째 연속 최다득표 행진이다. 스타에 대한 호감도를 알 수 있는 ‘좋아요’ 부문에서도 주간 1만8835개를 받았다. 그럼 이제 ‘강다니엘, 57주째 1위’ 기사를 미리 써줘야 하는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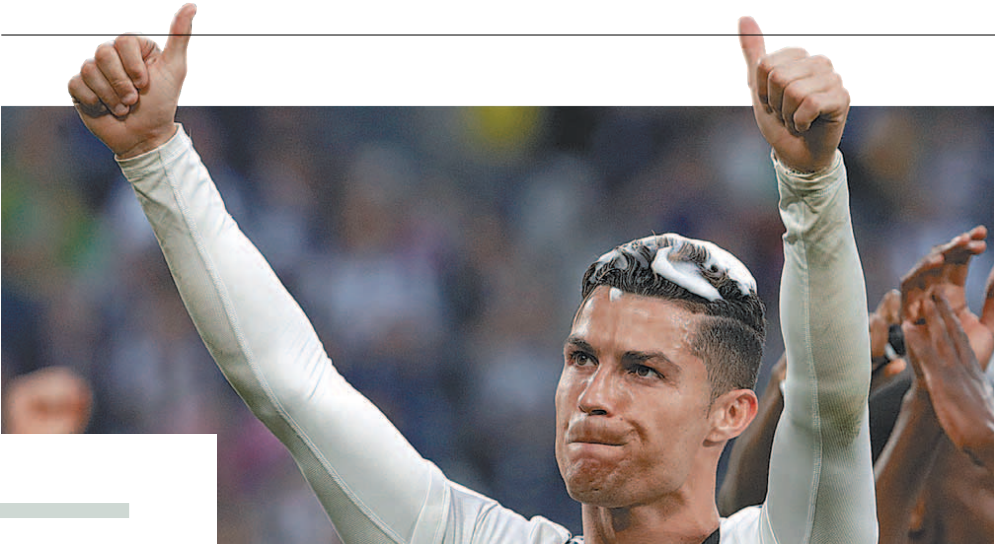
만나자마자 티격태격



친오빠 만난 박신혜

●박신혜, 현실남매 : 박신혜가 영국을 방문해 친오빠와 만났다. “몇 달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티격태격”이라며 올린 사진에는 물가에 나란히 앉은 남매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천하의 박신혜도 오빠에게는 그저 티격태격하는 여동생일 뿐, 그래도 군대시절엔 여동생 덕 좀 보시지 않았나요?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세리에A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앞)가 21일(한국시간)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피오렌티나전에서 승리를 거둔 뒤 양 팔을 번쩍 들고 팬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토리노(이탈리아 피에몬테주) | AP뉴시스

호날두 사상 첫 유럽 3대 리그 우승

유벤투스 세리에A 8연패… EPL·라리가 이어 새 역사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가 8연패에 성공했다. 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사상 처음으로 유럽 3대 리그(잉글랜드·스페인·이탈리아) 챔피언에 오른 선수가 됐다.

유벤투스는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피오렌티나와 2018~2019 세리에A 33라운드 홈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전반 6분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37분 알렉산드루가 동점골을 터뜨렸고, 후반 8분 상대 수비수 헤르만 패첸라의 자책골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로써 유벤투스는 승점87(28승3무2패)을 기록하며 한 경기를 덜 치른 리그 2위 나폴리와 승점차를 20점 차로 벌렸다. 나폴리가 잔여 6경기에서 전승을 거둬도 유벤투스를 넘을 수 없어 조기 우승이 확정됐다. 유벤투스는 2011~2012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세리에A 8년 연속 정상에 올랐고, 세리에A 통산 우승횟수도 35회로 늘렸다.

유벤투스 공격수 호날두는 유럽 3대 리그에서 모두 챔피언에 등극한 첫 번째 선수가 됐다.

포르투갈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프로에 데뷔한 그는 2003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로 이적해 2006~2007시즌부터 2008~2009시즌까지 3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2009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후엔 2011~2012시즌과 2016~2017시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UEFA 챔피언스리그에선 4번의 우승을 경험했다. 유벤투스로 이적한 첫 해에 이탈리아 무대도 정복하면서 주요 3대 리그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로 미국 ‘빌보드200’과 영국 오픈셜 차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100’에도 오를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영국 오픈셜 차트 1위 트로피를 쥐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 빌보드 핫100 순위, 전 세계 이목 집중

(내일 오전 발표)

미국에서 가장 경쟁 치열한 차트 BTS, 작년 ‘페이크 러브’로 10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기대 만발

‘싱글록 대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또 하나의 기록을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새 미니음반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를 발표한 방탄소년단은 컴백과 동시에 국내외 각종 순위 차트를 휩쓸고 있다. 한국 가수 최초로 세계 양대 음악차트인 미국 ‘빌보드200’과 영국 오픈셜 앨범 차트 ‘톱100’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이들이 23일(한국시간) 오전 공개되는 미국 빌보드 ‘핫100’ 순위에도 오를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핫100’은 앨범 차트인 ‘빌보드200’과 함께 빌보드 메인 차트 중 하나로, 글로벌 가수들의 개별 곡 순위를 매긴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순위인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음반 판매량, 라디오 플레이 횟수, 스트리밍

횟수 등을 합산해 집계한다.

이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이 기록한 최고 순위는 지난해 5월 발표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의 10위였다. 이후 같은 해 9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의 타이틀곡 ‘아이돌’도 1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새 앨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핫100’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는 전망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 세계 각종 음악차트와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는 ‘차트 데이터’는 최근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과 합사가 함께 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핫100’의 톱10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빌보드 리포터 케빈 케니도도 자신의 SNS에 “방탄소년단이 톱 5 성적을 받으려 하고 있다. 준비됐나?”라고 썼다. 실제로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역대 순위 3위를 기록해 톱10 진입에 한발 더 가까이 가게 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동행복권

복권건강구매

UP Down

구매금액 만 19세 이상

구매금액 10만원 이하

복권번호

8 15 17 19 43 44

2등 보너스 번호 7

1등 총 당첨금 2,000,000,000원

2등 총 당첨금 55,807,636원

3등 총 당첨금 2,022,168,614원

4등 총 당첨금 102,532,50,000원

5등 총 당첨금 1,765,328,5,000원

6등 총 당첨금 9,2,269,510,500원

7등 총 당첨금 61,55,807,636원

8등 총 당첨금 2,022,168,614원

9등 총 당첨금 102,532,50,000원

10등 총 당첨금 1,765,328,5,000원

11등 총 당첨금 9,2,269,510,500원

12등 총 당첨금 61,55,807,636원

13등 총 당첨금 2,022,168,614원

14등 총 당첨금 102,532,50,000원

15등 총 당첨금 1,765,328,5,000원

16등 총 당첨금 9,2,269,510,500원

17등 총 당첨금 61,55,807,636원

18등 총 당첨금 2,022,168,614원

19등 총 당첨금 102,532,50,000원

20등 총 당첨금 1,765,328,5,000원

21등 총 당첨금 9,2,269,510,500원

22등 총 당첨금 61,55,807,636원

23등 총 당첨금 2,022,168,614원

24등 총 당첨금 102,532,50,000원

25등 총 당첨금 1,765,328,5,000원